

법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취득세 부과는 잘못” 판결 광주·전남 건설사 반환 요구 잇따를 듯

중흥건설 승소... 市·道 10억 돌려줄지 관심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약 10여억원의 과세분을 건설사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방법원과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중흥건설이 분양보증수수료 과세분을 되돌려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광주일보 8월22일자 2면)에서 중흥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에 중흥건설 측에 과세분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이 아닌 주택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상 분양보증수수료는 건설사의 취득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2006년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중흥S-클래스 1·2·3단지 1418가구를 분양한 후 2008년 광주시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포함된 취득세 47억원을 납부했다. 이중 보증수수료 과세분은 3800여 만원이었다. 가구당 2만6000원 정도를 낸

셈이다.

이같이 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세금 부과는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주택건설사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보증수수료가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실적은 3만7498가구(2006년 2만2277가구, 2007년 1만2029가구, 2008년 3192가구)다. 이 중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9957가구를 제외하면 2만7541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중흥건설이 낸 과세에 견줘보면 약 7억여원 가량을 세금으로 걷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도 이 기간 동안 2만8842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LH 아파트를 빼면 1만7243가구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약 4억여원이 넘는 과세분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 과세가 아니다”며 “항고하겠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판결은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했으며, 올 초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분양하기 직전 의무적으로 내는 보증수수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과세를 중단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증시 1750선 후퇴 24일 서울 종로구 한 금융정보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코스피 및 외국인 거래 관련 그래프를 모니터 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닷새 동안 730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날 89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날 들어 전날까지 4조9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2일 이후 순매수를 기록한 날은 16일 불과 하루뿐이었다. /연합뉴스

여수, 월평균 임금 281만원 전국 최고

KIET, 남원 155만원보다 87% 높아
10년 동안 지역간 임금 격차 더 커져

최근 10년 간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광역도시통계연보 소득격차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는 임금이 가장 높았던 이천권(189만 원)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였던 영천권(116만 원)에 비해 63% 높았다.

반면 2009년에는 최고지역인 여수권(281만 원)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 지역인 남원권(155만 원)에 비해 87% 높아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9년 지역 간 임금 격차 추

이를 보면 2002년 최고 임금지역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지역의 1.48배로 그 격차가 가장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에는 두 배를 기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시간당 평균 임금을 봐도 2002년 지역 간 격차가 1.71배로 최소였다가 2008년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2.62배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월 평균 임금보다 실질적인 수적인 시간당 임금의 지역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것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며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라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연도별 임금을 비교한 것으로, 주변 도시의 통근 현상을 감안해 전국을 50개 광역도시통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편, 지식기반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보다 주력기간 산업이 집적된 지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집적된 여수권의 월평균 임금이 28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이 집적된 울산권(253만 원), 조선산업이 집적된 거제권(25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에 공정위, 이자까지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9개업체중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4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1억4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업체에도 이에 비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림살이 팍팍해졌다

가계 이자부담 최대... 비소비 지출도 늘어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분기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자비용을 비롯해 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아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이자비용 13.7% ↑... 소득 대비 비중 사상 최대 =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지난 2분기에 7만4083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가 한 해에 88만8996원을 이자를 내는 셈이다. 통계청의 이자비용은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나 가계 운영 등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비롯한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면 이자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비중이 이번 2

분기에 2.32%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2분기 기준으로 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중은 2006년 1.68%, 2007년 1.75%, 2008년 1.94%, 2009년 2.00%, 지난해 2.18%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분기에 보면 지난해 2분기 이래 줄곧 2%대를 보였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소득기준 하위 20%인 1분위의 이자비용은 2분기에 3만188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전체 계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18조9000억원 늘면서 1분기중 증가폭(10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연합뉴스

◇비소비지출 부담도 2분기중 최대...100원 벌면 세금·연금 등에 19원 지출 = 이자비용을 비롯해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 부담액이 증가해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2분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70만8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 자동차세 등 경감조세가 10만1932원으로 8.4% 늘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10만6320원)과 연금(10만1308원) 지출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9%,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7%로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17.48%, 2009년 17.99%, 지난해 18.5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올 농식품 수출 2억400만달러

지년대보다 37% 급증

광주·전남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는 7월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수출 실적이 2억4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1억4900만달러보다 36.6%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광주는 7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0만달러보다 52%, 전남은 1억2800만달러로 지난해 9900만달러보다 29.3%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1억800만달러로 35.2%, 수산물이 7800만달러로 36.9%, 임산물이 1300만달러로 42.5%, 축산물이 500만달러로 44.9% 각각 늘어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맥주 등 주류 5800만달러, 전복 2000만달러, 미역 1900만달러, 톳 1300만달러, 유자차 등 800만달러, 파프리카 500만달러, 김 500만달러, 개아지살과 김치 각각 400만달러 등이다.

한편 7월말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실적은 40억6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억7500만달러보다 32.2% 증가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이 전체 농식품 수출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여성가족부 인정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9월 20일(화) ~ 11월 24일(목) 매주 화, 목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9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징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